

전국에서 울려 퍼진 그날의 함성

서울 보신각과 순천 낙안읍성 3.1운동만세시위지

1919년 3월 1일 조선의 국권회복과 독립을 요구하는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군중들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독립만세"를 외치며 가두 시위를 진행하였다. 탑골공원에서 출발한 시위대가 향한 장소는 바로 지금의 보신각 네거리였다.

보신각은 본래 조선시대에 도성 사람들에게 성문을 여닫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 종각이다. 1395년(태조 4년)에 건립된 것으로 임진왜란과 6.25 전쟁 때 각각 소실되어 재건되었다. 고종 때 '보신각'이라는 현판을 건 후부터 이 이름으로 불리었다. 1898년 보신각 앞에서 만민공동회가 개최된 이후 군중 집회와 평화시위의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보신각의 사통팔달한 위치적 특성 때문에 3.1운동에 참여한 시위군중들은 이곳을 분기점으로 사방팔방 퍼져나갔다. 또한 학생단 주도로 제2차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3월 5일, 남대문 역 광장에서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졌던 시위대가 정오경 이곳에 모여 독립연설회를 개최하였고, 3월 9일부터 상인들의 동맹 철시가 단행될 때도 그 중심지가 되었다.



1900년 경 보신각



1919년 보신각 앞 만세시위

이렇듯 보신각에서 출발한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점차 확대되어 1919년 5월 말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어났다. 주로 장날을 이용하였고 햇불시위, 상인들의 철시운동, 학생들의 동맹휴학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신분과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전 계층이 참여하였다. 그야말로 전 국민적인 항일 독립운동이었다.

보신각은 근대 민족운동에서 상징적인 장소로서 한성 임시정부 선포의 무대가 되기도 하였다. 1919년 4월 23일 서린동 춘추관에서 국내 13도 대표자가 모여 한성 임시정부를 선포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보신각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고 문서를 배포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실제로는 계획보다 규모가 작아져 「임시정부선포문」과 「국민대회취지서」를 종로 일대에 살포하고 '국민대회 공화만세'라는 깃발을 들고 만세를 부르는 것에 그쳤다. 그럼에도 국내 13도 대표 25명의 명의로 배포된 위의 선포문과 취지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당시 '한성정부'의 법통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고 보신각은 그 선포지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현재 보신각과 거리 전경



일제강점기 당시 보신각 앞 거리 전경

보신각 이외에도 3·1운동이 전개된 역사적 현장으로 원형에 가깝게 남아있는 장소들이 있다. 3·1운동이 한반도 전역과 한인이 거주했던 해외 지역 대부분에서 전개된 만큼 관련 사적지가 국내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남 순천의 낙안읍성은 현재까지 성벽과 마을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어 3·1운동 당시 현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낙안읍성은 고려 후기부터 잦은 왜구의 침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1397년(태조 6)에 처음 축성되었다. 1424년(세종 6)부터 토성이었던 것을 돌로 다시 쌓아 성의 규모를 넓히고 정비하여 15세기 중엽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석축 성 형태가 완성되었다. 사적 제302호로 지정되었으며 마을을 둘러싼 성곽과 관아, 민가들이 오롯하게 남아있어 조선시대 고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낙안읍성 인근의 신기리는 유림적 기반이 강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 만세소식이 전해진 것은 1919년 3월경 대한제국의 내관을 역임했던 안호형이 서울에서 독립선언서와 포고문 등 밀서를 가지고 오면서부터다. 안호형은 낙안의 이병채, 안규휴, 김종주 등 유림들에게 파리강화회의 등 국내외 정세를 전하며 만세시위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뜻을 함께하기로 하였다.



순천 낙안읍성 전경 항공사진

이 중에서도 낙안읍내의 시위를 주도한 유흥주와 김종주는 4월 13일 각자 집에서 '조선독립기'와 태극기를 준비하여 오후 2시경 낙안읍내 서문 밖으로 향했고 사전에 뜻을 함께하기로 한 박태문, 배윤주, 배형주, 김선제와 합세했다. 이들은 대나무에 묶은 깃발을 흔들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보초를 서던 보병들을 뚫고 서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낙안시장에 있던 다수의 군중을 향해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외쳤고 이에 많은 군중들이 호응하여 대대적인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특히 김종주는 "현재 파리에서 개최 중인 강화회의에 조선이 독립된다는 말이 있어 독립만세를 부르고 있으므로 ... 우리 동지들은 낙안읍 장날을 기회로 삼아 대한독립만세를 외쳐 ... 국권을 회복함이 옳지 않겠는가" 라는 요지의 연설을 하였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대략 150여 명이였다. 시위를 제지하는 헌병의 총검을 빼앗는 등 일제의 탄압에 적극적으로 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현재 낙안읍성 동문 쪽 입구에는 낙안면 일대에서 전개된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자 추모의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1956년 건립된 본래의 기념탑과 1982년 보수하면서 만들어진 약사비가 자료관 앞과 서문 앞 공터에 흩어져 있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 및 낙안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테마공원이 조성되면서 한 곳으로 이전, 정비되었다.



시위를 주도한 유흥주



낙안읍성에 설치된 3.1운동기념비